

▶ 의생활

제주의 수의구성법과 상장례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권 속 희*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제주인의 복식에 대한 초기기록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제주만의 독특한 복식문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제주의 고유복식이 외부지역과의 빈번한 문물교류로 외부의 요소가 제주양식과 혼합하여 새로운 복식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고려시대 몽고의 점령과 조선시대의 강력한 지방통치, 그리고 유학자들의 제주 유배는 생활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복식은 자연환경은 물론 정치, 경제, 신앙, 사회제도 등의 사회환경에도 유기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 소멸한다. 또 특별함 의식이 있을 때는 풍습에 기인하므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바로알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수의 또는 저승옷을 제주에서는 '호상옷'이라 하며 여자인 경우는 혼인할 때 입는 옷인 장옷을 남자는 가장 큰 옷인 도포를 수의로 사용하였다. 즉 결혼 때 입었던 옷을 환갑 때도 입고 죽게 되면 다시 호상옷으로 입었던 것이다. 재료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삼베를 선호하는 데 제주에서는 명주를 많이 쓴다. 명주로 장만치 못할 경우는 삼베로 하였고 무명이나 모시, 화학섬유는 절대 사용치 않았다. 타지역과는 구별되는 제주 고유의 풍습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장례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부터 시신을 매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근친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며 근신해 복을 입는 방법과 일정한 기간동안 복을 다 입고 평생생활로 돌아갈 때까지의 각종 제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민간신앙과 유교규범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의례절차에 따른 매장문화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현세 중심적 생사관과 서구의 세속주의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혼재함으로써 장의 과정의 전통적 윤리관과 형식성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급속히 변화하게 되었다. 더욱이 개인주의의 성장과 젊은이 중심의 편의주의,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제도의 변화 등은 가부장제에 근거한 상례의 요인들을 약화시켰으며,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에 따른 묘지증가는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업용지의 확보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상장례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상장례의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본연구의 목적은 제주의 고유한 수의구성법과 상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른 수의문화에 따른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하며 수의를 제작하고 효율적인 활용에의 기대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문헌과 인터넷조사, 제주 수의제작 작업장 방문, 제주 고유의 수의제작 문화재로 지정된 할머니와의 면담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는 타지역과는 다른 고유한 풍습에 의해 수의 문화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타지역과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둘째, 제주 역시 심각해져가는 묘지 문제,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지금까지의 장례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긴 하지만 화장의식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례문화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수의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수의를 비싼 가격, 소재(명주) 등이 현실에 알맞게 조정되어 올바른 수의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와 상장례 의식 변화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수의에 대한 대안 및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